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5. 12. 17(목) 11:00~11:30
- 장 소 : 자원봉사센터(구청 7층)

---

## 〈 심 의 안 건 〉

1. 2015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조치사항 결정 건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 연장 건
- 

간사 : 위원 소개 및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안내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연말에 바쁘실텐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위원 11명 중 7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장으로부터 2015년 평가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평가결과 보고 (회의자료 참조)

위원장 : 다음 평가결과에 대해 논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청소대행업체 체계 개선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내년 하반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새롭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평가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식 위원 : 제가 이번에 현장평가를 나가봤는데, 작년에 비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에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요, 많이 깨끗해지고 주위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주 깨끗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세군데 다 다녀보았는데 (태한환경)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석관적환장은 두 업체가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깨끗했지만 차량이 약간 노후하였습니다.

위원장 : 태한환경의 경우 올해 월곡적환장을 직송방식으로 전환하니까 월곡동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태수 위원 : 향후 월곡적환장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

위원장 : 일단은 2017년 상반기 생활폐기물까지 적환장으로 안들어오고 직송을 해서 추후에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지하화하여 공원화 하거나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100억 이상 소요되므로 구비로는 곤란하고 서울시랑 예산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직송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수 위원 : 생활폐기물을 어디다가 적치합니까

위원장 : 적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시설로 바로 직송합니다. 지역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김태수 위원 : 석관적환장, 장위적환장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월곡적환장 뿐 아니라 향후에는 모든 적환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환장도 깨끗해야 하지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 향후 3년내에 다른 적환장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 중입니다.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파업 등 비상시에는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사 : 차량 구입 비용이 30억 가량 듭니다. 아파트 지역은 바로 가능한데 주택 지역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위원장 : 인력과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 비용이 두 배 이상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 1톤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전용차량으로 싣어서 적환장으로 안보내고 바로 처리장으로 싣고 간다는 내용이지요. 그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는 부분인데

간사 : 차량구매하고 인건비에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수 위원 : 그 비용은 모두 다 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데,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수반될 수 밖에 없겠네요.

위원장 : 함부로 못올리는게 서울시에서 2017년까지 60% 정도까지 인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못올리고 우리 예산에서 투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현재 쓰레기 양이 줄고 있고 감량이 문제인데, 쓰레기 양이 줄면서 최근에 재활용품은 증가하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재활용품이 안팔려 또 문제입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박혜원 위원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너무 늦게 수거가 됩니다. 주위에 눈여겨 보면 열흘씩 걸리는 것도 있고, 원룸이 많아서 폐기물이 나와 있으면 주변에서 필요한 것만 빼가고 필요 없는 것만 방치가 되서 엉망이 됩니다. 차다니는 데에도 위험하구요. 옛날에 동에서 가져갈 때가 좋았는데 두리아이엔알로 바뀌고 나서는 많이 늦어요, 내집 앞에 내놓고 갔는데 얼른 안치워주면 많이 부담이 되요.

권형식 위원 : 하나 수거하기 위해 차가 와서 가져가기 힘들죠. 돈이 많이 안남는데 즉시 수거하기 힘들죠

위원장 : 한 개 나오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3일이면 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위원 : 이전에는 민원이 많아서 최근에는 차량도 새로 구입을 해서 많이 전 보다는 개선되기는 했는데요,

김태수 위원 : 수거가 늦으면 대행업체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50.21점이면 너무 낮습니다. 다른 업체는 80점 이상 올라가는데 여기는 너무 낮네요.

박현식 위원 : 대형폐기물은 현장평가를 하지 않아서 60점 만점입니다.

위원장 : 두리아이엔알도 2013년부터 평가를 보면 매년 점수는 조금씩 상향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행업체에 전달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 장위동 재개발 구역 2, 5, 4구역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산적해 있어요. 주거정비과와 얘기를 해서, 조합측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시고 조합측에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위원 : 재개발 구역은 조합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즉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안건 제1항, 2015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조치사항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의결을 반영하여 평가점수 80점이상을 받은 우수업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철한정화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금을 최우수업체인 철한정화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우수업체인 강남환경에게는 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 이것은 2013년도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구비에서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철한정화에 200만원, 강남환경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은 안건 제2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 연장건을 상정합니다.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계약기간을 2017.12.31.까지 2년 연장하고 2015년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심의사항 외에 다른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업체에 대해 전달하고 청소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 올해에 주민들에게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지금도 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박혜원 위원 : 여러 가구 사는 원룸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차원에서 분리 거치대가 있으면 좋은데 어디서 구할지 몰라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양승훈 위원 : 분리수거함이 가격이 비싸요

박혜원 위원 : 구청에서 좀 만들어서 보급해주시면 좋은데요.

박현식 위원 :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으면 좋은데, 관리를 안하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양승훈 위원 : 분리수거함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일부는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립니다.

박혜원 위원 : 음식물도 쓰레기통을 두면 봉투에 넣지 않고 막 갖다 버려서 여름에 힘들어요.

양승훈 위원 : 지나다니면서도 막 버리구요.

김태수 위원 : 맞습니다. 아직 주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어서 제일 많이 모이는데가 하수구예요. 이걸 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 가로 쓰레기통을 다 없앴다가 최근에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너무 늘리면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